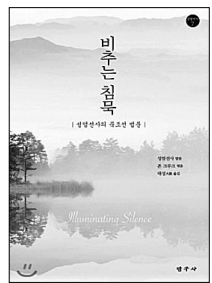


‘禪七’ 과정속에 나타난 목조선 핵심



비추는 침묵
 성엄선사 일승
 존 크루크 엮음
 대성 옮김
 탐구사 펴냄
 1만5천원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적으면 단순할 수 있습니다. 수행할 때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지적오로나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수행뿐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하십시오.”

이 책은 중국 선불교를 세계에 알린 대만 성엄 선사가 1989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영국 웨일스서 7일 단위의 집중 수행인 ‘선칠’을 이끌면서 했던 법문을 중심으로, 편자의 해설적 머리말과 선칠 체험기를 함께 실고 있다. 특히 성엄 선사의 목조선법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중 하나다. 편자 존 크루크는 웨일스도 스님을 모셔 선칠을

하면서 이 법문을 채록해 책으로 엮고, 스님의 선법에 자신의 수행 체험에 기초한 명쾌한 해설들을 덧붙였다.

이 법문에서 성엄 선사의 망명법사의 <식심명(息心銘)>과 평지정각 선사의 <좌선잡(坐禪箴)>에 대한 강해를 위시해 선 수행에 필요한 핵심적 태도와 방법들, 특히 평지정각 선사의 목조선법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자신의 목조선법을 명료하게 설명한다.

성엄선사 영국 ‘선칠’ 체험기

현대적 재해석한 목조선법 설명

편저자 명쾌한 해설 붙여

중국 선불교에서 목조선은 화두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다가 시대가 내려가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져 후대에는 사실상 실절된 것처럼 보였다. 다만 일본에서는 도겐 선사가 중국에서 이 선법을 배워

와 ‘지관타좌(只管打坐)’라는 이름의 행법으로 널리 보급한 뒤로 일본 조동종 수행법으로 전승됐다.

성엄 선사는 평지정각 선사의 옛 문헌과 자신의 수행 체험, 그리고 다양한 수행지도 경험을 토대로 정통 중국 목조선을 부활시켜, 종래 어렵게 여겨지던 목조선을 한결 접근하기 쉬운 현대적 수행법으로 거듭나게 했다. 이것은 선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발전 양상인데, 그 목조선법의 핵심을 구체적 선칠 과정 속의 가르침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제 1부와 제 2부는 각기 1989년과 1995년에 성엄선사가 웨일스에서 한 선칠 법문이고, 제 3부는 제자인 존 크루크의 선칠 체험기이다. 망명법사의 <식심명(息心銘)>에 대한 강해를 포함하는 제 1부에서는 선 수행의 기본 요령, 특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친다. 제 2부는 평지정각 선사의 <좌선잡(坐禪箴)> 등을 중심으로 목조선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중국 목조선이 일본의 ‘지관타좌’와 개념, 방

법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편자의 선칠 체험기는 선칠 수행자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깨달음의 경지를 열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드문 기록이다. 성엄선사의 간명직절한 가르침과 그 제자의 명료한 분석 평가가 함께 어우러진 기념비적인 선 수행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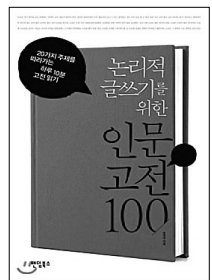
성엄 선사는?

중국 본토 장쑤성 출신의 대만 선사이다. 6년간 폐관(閉關) 수행 했고, 일본에 유학해 불교학을 연구하기도 했다.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가 선 수행을 지도했으며, 선사로서 대만과 미국을 오가며 불법 선양에 힘썼다. 중국 임제종과 조동종 법맥을 이었고, 이 양종과 교학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새 불교 본산인 법고산(法鼓山)을 대만 북부에 창건해 이곳을 불교 연구와 수행의 세계적인 센터로 만들었다. 30년에 걸쳐 100여 차례 선칠을 주재해 많은 선 수행자들을 지도했으며, 대소 100여 권에 이르는 많은 저술 또는 법어집을 남겼다.

고전은 철학의 기초체력 길러줘

논리적 글쓰기를 위한 인문고전 100

함영대 지음 | 랜덤박스 펴냄 | 1만5천원



자기 소개서, 리포트, 논문, 논술고사 등의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정연한 논리를 바탕으로 써야 하는 글쓰기, 즉 논술이다. 논술은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같은 재료가 있어야 쓴다. 세상의 삼라만상이 모두 재료이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글로 쓸 수 있다. 물론 모든 글이 좋은 글은 아니다. 좀 더 정리되고 체계적이며 설득력 있는 글이 좋은 글이다. 좋은 글이 공감을 얻는다. 고전은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읽혔다. 공감받은 만한 사연이 담겨 있다. 공감받은 글쓰기에 고전은 좋은 양식이 된다.

고전은 글쓰기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논점에 대한 생각을 키우기에도 요긴하다. 논술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들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서 허약함을 드러낼 때가 종종 있다. 논리를 전개할 근원적인 힘, 곧 논리에 내재된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전은 그 철학의 기초체력을 길러 준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책을 읽어야 하는가? 고전으로 지목된 책들은 적지 않고,

논술의 주제는 인간의 현재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다. 주제 범위가 무척 넓다. 주요한 주제별로 논제의 쟁점을 확인하고 논리를 전개할 단서를 얻을 수 있다면 논술에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요긴할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필요에 의해 써졌다.

이 책은 ‘종교’, ‘삶의 자세’, ‘인간 소외’, ‘생명 윤리’, ‘개인인 사회’, ‘역사’ 등 총 20개의 주제를 정하고 각 주제별로 평균 5종의 고전을 소개했다. 각 편은 해당 고전의 쟁점과 전체의 줄거리를 요약했다. 아울러 해당 고전에서 뽑은 ‘한 구절 경구’와 쟁점에 관한 ‘문답 하나’를 넣었고, 저자를 소개하여 이해를 심화시켰다. 특히 쟁점에 관한 질문에 참고할 길잡이를 넣어 어떠한 방향으로 논리를 펴는 것이 좋은지 충고해 준다. 해당 저자나 주제와 관련된 한 권의 책을 부록한 것은 보너스다.

모두 100종의 고전이 실려 있는 이 책은 논점을 확인하고 논리의 근거를 전개하는 이론적 바탕을 길러 주기에 충분하다. 시간이 없어 많은 고전을 읽지 못하지만, 주요 고전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각 편은 5~10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해도 1종의 고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여졌다. 자투리 시간이 날 때 하루 한 편씩만 읽어도 100일이면 모두 읽을 수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논리의 진전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세 편의 특별한 절집 동화 이야기

특별한 장소/절집 개 점순이/부처님의 구슬

참글어린이 펴냄 | 글 이경순, 박선영, 정가일 | 그림 이은주 | 9500원



불교신문사가 주관한 신춘문예에 당선작들을 모아 엮은 세 편의 동화집이다. 제목은 ‘특별한 장소’ ‘절집 개 점순이’ ‘부처님의 구슬’ 등이다.

△특별한 장소=지금도 많이 사라져 보기 힘들지만 서낭당과 함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을 숭배했다. 옛 조상들의 혼을 받아 남국의 ‘세종과학기지’에도 우리의 장승이 수호신으로 세워져 있다. 남쪽에 사는 펭귄은 이상한 장승을 보고 연구원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장승에게 빌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펭귄은 도둑갈매기들이 자신의 알을 훔쳐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장승에게 간절히 빈다. 펭귄은 소원을 이루지만 도둑갈매기의 죽음을 보고 도둑갈매기 새끼들에게 먹이를 잡아다 주어 기른다. 함께 사는 공동체를 실천으로 옮기며 새끼 도둑갈매기가 커가는 모습을 보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는게 주 줄거리다.

△절집 개 점순이=주인을 잘못 만난 펠리사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한다. 어릴 때는 귀엽게 봐주다가 커가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돼서다. 새로운 주인 스님을 만나지만 쉽게 정을 주지 않는다. 절집에 와 곱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한결같은 스님의 마음 쓰임에 곱순이는 스님을 진정 주인으로 섬긴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동물들도 은혜를 알아 주인을 섬긴다는 교훈을 준다.

△부처님의 구슬=아빠는 전정터에 나가 안개치고 병으로 누워 계신 엄마의 병을 고치기 위해 구슬을 찾아 떠나는 지민이는 가는 길에 여러 동물들을 만나 구슬을 구해 아픈 곳을 고쳐 주기로 약속한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엄마의 병을 고쳐 주려는 마음으로 먼 여행을 떠난다. 구슬을 구해 오던 길에 동물들을 만나 하나씩 동물들을 도와주다 보니 엄마를 고치려는 구슬이 모자라게 됐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지민이는 엄마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정성껏 엄마를 도왔다. ‘인공은보’라는 말처럼 지민이가 도와준 동물들이 힘을 합쳐 지민이의 엄마가 낳을 수 있는 약초와 먹을 수 있는 산열매들을 마당 가득 가져다주었다. 지민이의 소원대로 엄마의 병을 낳게 해 주고 아빠도 만나게 해주었다는게 주 내용이다.

김주일 기자

민중에게 역사의 진리 밝히고자 고뇌한 일연 스님 결심 ‘삼국유사’

삼국유사, 역사의 뜻을 묻다

이영호 지음 | 평사리 펴냄 | 1만6천원



《삼국유사》의 글쓰기는 요즘 역사책 쓰기와는 많이 다르다. 일연 스님은 물리적인 사실을 나열하지 않는다. 실증적이고 물리적인 사실을 최소로 하고, 그것도 이야기와 일화 속에서 드러내려 애쓴다. 《삼국유사》 글쓰기를 한 마디로 줄이면 ‘집중’ ‘배제’ ‘배치’ 그리고 ‘문학적 상상’이다. 요즘 역사책엔 낯선 방식이지만, 사마천의 <사기> 특히 <열전>에서 빛을 발한 글쓰기이다.

《삼국유사》 연구에 필생의 건 고운기 교수에 따르면, 일연의 바탕 속에는 《삼국유사》의 원자로 중 일부가 적어도 40년 동안 안 들어 있었다고 한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못 잡아도 40년은 묻고 있던 것이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화두 모음집에도 들어있지 않은 화두를 듣게 했을까? 나라가 절망적인데도, 한 나라의 역사를 되짚어볼 책이 없다는 서글픔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삼국유사》가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의 얼굴을 보기에 미심쩍었다. 그래서 일연 스님은 역사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흥망성쇠를 다 겪은 삼국시대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역사 전체를 다 드러나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역사가 되어 가는 꼴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갈무리해 알려주었다.

김주일 기자

일연 스님(1206~1289)은 지금의 경북 경산시 태어나 14세에 출가하고, 22세 때 승과 시험장원으로 급제한 뒤 선승으로 수행하며 선사와 대선사를 거쳐 국존에 이르렀다. 일연 스님이 살다 간 13세기는 참으로 격동의 시기였다. 1170년 무신정변으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한 뒤 고려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그가 태어난 해에 칭기즈칸에 의해 통일된 몽골은 이후 1231년부터 모두 7차에 걸쳐 고려를 침입했다. 고려는 몽골의 일본 정벌을 위한 연합군으로 참여해 피를 흘려야 했다. 일연은 바로 이 내우외란의 힘겨운 시대를 사는 민중들에게 역사의 뜻을 밝히고 그 뜻을 알리고 싶어 했다. 그 결심이 바로 《삼국유사》이다.

이 책은 모두 5권 9편, 139개 조목으로 이뤄졌는데, 이 책에서는 1권과 2권의 <기이>편을 중심으로 하되 3권 <흥법>편에서도 신라왕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함께 다뤘다. <기이>편이 신라 중심이기도 하지 않다. 일연 스님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마음에 두고 <기이>편을 세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책은 신라 시대 전체를 사계절의 흐름으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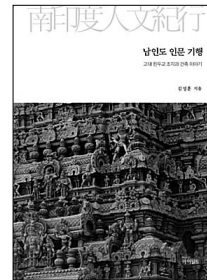
봄은 우리나라의 원천인 단군사회를 먼저 다룬 뒤, 신라 시조 박혁거세부터 김유시조 김알지까지를 주로 하되 그 뒷부분도 곁들여 다뤘고, 여름은 17대 내물왕부터 24대 진흥왕까지, 가을은 25대 진평왕부터 33대 성덕왕까지, 겨울은 35대 경덕왕부터 신라의 마지막까지 다뤘다. 하지만 우리 현대사 100년이 신라의 겨울과 닮았다는 생각에, 책은 겨울부터 시작하였다.

김주일 기자

인도 문화의 원형 탐색한 기행서

남인도 인문기행

김성훈 지음 | 아이필드 펴냄 | 1만6천원



지리지, 여행기가 아닌 힌두 문화의 원형을 탐색한 책이다. 인도는 흔히 14억 인구에 3억3천만 신들이 사는, 만신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인도 중에서도 남인도의 도시 17곳과 그 주변의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유적지의 건축과 조각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힌두교의 고대 건축과 조각이 주를 이룬다. 저자는 전직 엔지니어 출신으로 지금도 불교미술을 공부하고 있다. 30년간 해외 여러 곳에서 근무하던 중 인도-네팔과 인

연을 맺었고, 북인도 곳곳을 다녔다. 그러다 불행히 테칸고원 이남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고대 힌두교의 조각과 건축이 궁금했고, 뽕골 만이나 아라비아 해안의 대항해시대 흔적들, 북인도와와는 다를 것 같은 그곳 사람들과 자연이 꼭 보고 싶었다.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 중국 둔황(敦煌) 석굴 제285굴 때문이다. 서위(西魏) 문황제 대통(大統) 연간(538~9)년에 조성된 제285굴 벽화에는 힌두의 신들이 보살로서 부처님을 협시(夾侍)하고 있었다. 그 신들이 이역의 땅 둔황에서 어떻게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는지, 그 사연이 궁금했다. 남인도에서 흡사한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조성 시기가 둔황보다 늦었다. 원했던 답은 찾지 못했다. 대신에 힌두의 예술품을 감상하는 행운을 덩으로 얻었고, 그것을 글과 사진으로 남겼다.

김주일 기자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칠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